

■기고 - 화일晦日 권중현(權宗鉉, 북야공파 35세)

# 인간사 발전의 기원은 상부상조에서 연유한다

인간 발전의 기원은 상부상조이다. 인간 자질의 근간은 그의 마음의 유연성(悠然性: 침착한 성격)과 공여지책에서 기원한다. 인간의 가치관은 인심(人心), 인심(仁心), 인심(忍心), 중심(中心)이다. 마음의 가치관 즉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만물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태도나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인간 자질의 기원이 된다. 마음이 없으면 일이 없고 마음이 건실하면 태산도 움직인다는 속설이 있다.

우를 알 수 있고 상대를 알아야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안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란 쉽지 않다. 즉 내가 이 시대 이 고장에 필요한 존재인지를 가려 유익한 행실을 더해 진리와 도리의 길을 가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다. 세상사 인사(人事)를 자살을 알려면 상대를 알아야 한다. 본인이 그대들을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먼저 상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상기하여 공동(公同) 공생(共生)하고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을 가려 인정은 쌓고 화합은 기려야 한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보물은 상부상조, 인사(人事)의례(人事儀禮) 인정을 다하면 만사형통을 이룬다.

인간 세상사 발전의 기원은 단합의 의지에서 관인지도(寬忍志道, 너그러운 마음의 길), 지인지감(知人知鑑, 남을 알고 자신을 알)으로 나 때문에 네가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있는 세상이다. 신언서판(身言書判) 택인지법(擇人之法)에 인간은 오직 공생공사(共生公事)로 발전해 온 동물이라 덕군이 재(德均)이재(在才), 재주와 덕을 같이 하며) 재균이로(才均以勞, 노력은 재주와 같이 한다)로 오늘의 인간세상사가 이루어진 것이니 오직 인간의 길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길 상부상조가 대로(大路)인 것이다. 천리와 지리, 초목은 하늘과 햇빛(日光) 달빛(月光) 수분(水分)에 따라 자라며 인군을 해치지 않으려 직고(直高) 직

선으로 자라며 부딪치면 양보하는 것이 초목의 생리이며, 동물은 행동의 체질이 상생상존(相生常存)의 사리(事理)를 다하지 못하는 물체 즉 공룡(恐龍)이나 맹수는 동질(同質) 동수(同獸)를 해치고 잡아먹으니 번식번영(繁殖繁榮)의 길이 열릴 틈이 없었을 것이다. 오직 인간만은 너 때문에 내가 있고 나 때문에 내가 있으니 공생공감(共生共感) 화합과 결속(結) 지에 따른 지인지감(知人之鑑) 관인지법(觀人之法) 상부상조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한 것이다. 인간의 가치관(價値觀)은 지식과 겸문 즉 사지(四知) 사식(四識)으로 얻어진다.

■기고 - 권기성 대종회 이사(북야공파 36세)

# 나날이 새롭게 달라지는 정보를 보면서!

100만 족친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 정보가 우리 안방까지 전해지기까지는 그 중심에 권행완(추밀공파 36세) 편집국장님이 있다. 국장은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식견으로 정치,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통찰력을 갖춘 정치학박사



권행완 편집국장

이다. 잘 짜여진 편집에다 글을 읽는 순서는 어느 일간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국장은 1년여 전 인터넷으로 안동권씨 대종회를 접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다 인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나는 오늘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정보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에 있는 정보 편집실을 찾았다. 이곳에 오니 담당자가 첫 번째로 전하는 말은 전에는 교정

을 보기 위해 4명이 왔었는데 지금은 국장 혼자서 편집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국장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4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냐고. 대답은 이랬다. 평소애 A4 80여장 되는 원고를 본격적인 편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정까지 다 끝낸다고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기사를 확인하고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사를 작성하고 교정하는 일이 비

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마지막 편집실에서는 기사 배치와 글자 크기 등에 대해 편집하면 정보 편집이 마무리 된다고 귀띔했다. 자려는 딸 한명이 있는데 아빠를 닮아 서인지 역사와 철학 등을 좋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필자는 이런 사람이 우리 대종회 편집국장장으로 일하고 있기에 앞으로 권문의 정보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세계 안동권문은 100만이다



100만 족친 문제로 북한과 해외 동포 중 권씨의 인구를 추적 조사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0년 남한인구 조사에서 4598만명의 1.41%인 65만명, 2018년 남한인구 5177만명을 동일 비율로 대입하면 73만명, 여기에 북한 인구 2561만명 추계, 이중 북한인명사전 3만명 중 권씨 비중이 0.67%로 인바 이를 대비하면 17만명 정도가 된다. 해외동포 750만명도 같은 비율로 적용하면 5만명 정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 합이 95만명이니 100만 족친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마침, 북한의 대표 잡지 '조선의 오늘'에 최근 북한 사회과학원 민속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손전화기(핸드폰) 프로그램(앱)이 소개되었다. 이것은 성씨문화가 우리민족의 고유한 자산으로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 (조선의 성과 본)1.0: 이 앱에 대해서 "자기 성씨와 본관의 매력, 자기 성씨의 시조, 자기 조상들 가운데서 력사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잘 아는 것은 민족적 전통과 고유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살아 온 우리 선조들의 력사와 문화, 생활을 리해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프로그람은 우리 나라의 성씨가운데서 221개의 성씨와 550여개의 본관의 간단한 매력, 본관에 따르는 8,300여명의 인물들의 활동내용과 함께 성과 본에 대한 리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식과 용어해설을 주었으며 사용자들에게 자기의 성과 본에 대한 상식을 넓혀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권오철 기자

## 관자의 성인론(聖人論)

관중은 춘추시대 정치가이다. 그는 중국 역사상 다섯 손가락에 들만큼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의 한명이다. '관자'는 관중이 행했던 정치와 정치사상 등을 집약해 놓은 책이다. 이 '관자'에서도 성인(聖人)에 대해 승마(乘馬)편과 심술하(心術下)편에서 다루고 있다. 승마편은 경제적 측면의 국가의 기본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내용이고 심술하편은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심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성인에 대해서 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먼저 승마편은 경제적인 성인을 말한다. "성인은 성인으로 여기는 이유는 백성에게 잘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성인이 백성에게 나누어줄 수 없으면 백성과 다르지 않다. 자기도 부족하면서 어떻게 성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백성에게 비용을 거두지만 일이 없으면 백성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오직 성인만이 백성에게 생산문제를 잘 맡긴다." 관자의 성인론은 백성들에게 잘 나누어 주

어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한다. 또 성인은 국가재정을 잘 관리한다. 성인은 세금을 되도록 과도하게 걷지 않고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만큼만 걷어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심술하편에는 "성인은 하늘과 같아서 사사로운 욕심이 없고 땅과 같아서 사사로이 신기 않는다. 사사로움이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성인은 사적인 차원을 떠나서 오직 공(公)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공공선을 실현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적인 마음이 끼면 천하는 어지러워진다. 성인은 하늘과 땅과 같다. 그래서 하늘과 땅처럼 사사로이 더거나 사사로이 신기 않는다. 또한 성인은 이름과 실재를 일치시켜 천하를 다스린다. "무릇 사물은 상응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고 성인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니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름이 실제 사물을 방해하지 않고 천하에 혼란을 조성하지 않아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것이 '관자'의 성인론이다. 권중현

■ 4자성어

# 男兒之事 丈夫之命 自古如是

顏真卿 書

男兒之事 丈夫之命 自古如是 (남아지사 장부지명 자고여시)

남아의 일과 장부의 운명은 옛부터 이와 같은 것이니(절대로 심려하지 말라)...

사나이 한 목숨 이렇게 버리는 것이 正道이다. 이것이 우리 권문의 전통이며 자랑이다. 오늘날 구차하게 변절과 일구이언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권징(權徵) (부정공파, 원종공신병마북평사)이 이시애의 난(세조 13년, 1467년)을 평정하고자 출정했다가 패배하면서 죽임에 이르러 혈서를 써서 노복에게 전해준 것이다. 임금에게 4배, 고향에 2배 후 순절(자결)한다. 이 혈서를 쓴날은 기일로 하여 제사를 '불천위'로 지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부정공파를 파멸시킨 수양대군(세조)을 위해 죽은 것이니 아이

로니컬 하긴 하지만, 그 무인으로서의 충절은 가상하기 이를 때 없다.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정성공파에 의관을 뒀었다. 호는 등안(藤安)이고 수의부위(修義副衛) 가후(可後)의 자이다. 그의 후손은 대대로 과신(科臣)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또 한사람의 권징(權徵, 1538. 3월 33~1598. 12월 31)이 있으니 조선 선조 때 문신, 자는 이원(而遠), 호는 송암(松菴), 시호는 충정(忠正), 본관은 안동(安東). 공(公)의 아들. 1562년(명종 17) 문과에 급제, 한림(翰林)에 있을 때 직필(直筆)로 글씨를 짓지 않았고, 임란공신이며, 성남시 수정구에 묘가 있다.

## 정정 기사

본보 5월 1일자 잘못 보도된 기사를 정정 보도합니다.

구분	정정 전(→)	정정 후(←으로)
4면	동해 권현조선생수갈 및 고유제 불행 제목 아래의 "묘갈명은.... 권감현교수가 찬했고"	"묘갈명은.... 한학자 권기갑 부회장이 찬했고"
6면	권오신의 현조 실록 산책 기획특집 3 제목 아래의 "선조 20년 1857년 47살에 하세하시니"	"선조 20년 1587년 47살에 하세하시니"

##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19년 6월 27일(목) 오후 7시
- ◆ 장 소 : 우가촌(가마솔설령탕) 02-702-5047, 010-5358-2840
-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5번 출구·지하철6호선 공덕역6번 출구
-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19년 6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 서울산악회 정구산행 안내 (제296차)

- ◆ 일 시 : 2019년 6월 16일 오전 10시(매월 3째 일요일)
- ◆ 등 산 지 : 봉산
- ◆ 집결장소 : 증산역 1번출구
- ◆ 준 비 물 : 산행필수장비 등 개인별 준비
- ※ 산행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회 장(권중현): 010-4037-6656 등반대장(권오준): 010-3718-4204 사무국장(권오준): 010-3261-2570

2019년 6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중현